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보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Inc.

제60호

발행인 : 신 현원

편집인 : 박 대원

1998 년 6 월



회장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

우리 동창회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선배님, 후배님들,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것입니다. 동창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동창 한사람, 한사람, 친근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 건강하십시오. 고 임기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쁜 소식 하나도 없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동창모임에는 자녀들까지 다 모여 한때는 400 여명의 모임에 자녀들의 식사, 여흥, Baby Sitting 까지 준비하느라 바빠본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녀없는 200 여명의 모임인데도 신경은 훨씬 더 쓰입니다. 동창회원들, 조금이라도 더 동창회를 통해서 젊은날의 추억이 되살아나고, 현실의 즐거움을 나누고, 앞날의 짜여진 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작년 10월에 혼자 2주동안 고국의 산과 바다를 끝없이 헤메 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미래의 생활을 설계하는데 과거의 아름다움을 가미한다면 더욱이나 풍요로울 것입니다. 동창회가 풍요로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구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Michigan 모임, 다 같이 모여 즐기시기 바랍니다. 12월 말 Orlando 에서의 KMAA 모임에 하루만이라도 우리동창회원들 같이 golf 치고 식사하도록 주선해 보겠습니다.

이 회보 발간 하는데 수고하신 박 대원 동문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8 년 6 월

동창회장 신 현원 올림

CONVENTION SCHEDULE

THURSDAY, AUGUST 20

- 1 p.m. - Golf (동기별)
- 6 p.m. - 9 p.m. Registration
- 7 p.m. - 9 p.m. Welcome Reception (Seoul Garden)
- 9 p.m. - 10 p.m. Delegate Meeting

FRIDAY, AUGUST 21

- 7:30 a.m. Shotgun Golf Annual Golf Tournament at Eagle Crest Golf Course
- 2 p.m. - 5 p.m. CME
- 6 p.m. - 12 a.m. Marriott Hotel Dinner

SATURDAY, AUGUST 22

- 7:30 a.m. Shotgun Golf Annual Golf Tournament at Eagle Crest Golf Course
- 2 p.m. - 5 p.m. CME
- 6 p.m. - 1 a.m. Annual Ball Cocktail Reception

SUNDAY, AUGUST 23

- 7 a.m. Golf (동기회)

Special room rate: \$105 by July 25, 1998

동창여러분께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 인술이라는 빛과 그림자의 양면의 굴레를 지고 한국 의료계의 중심 타자로서 경향 및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교 경북의대의 긍지를 심고 계시는 동문 여러분, 이제 모교는 66 회라는 졸업생을 금년에 배출하면 동문의 숫자도 이미 5,600 여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상은 치열한 경쟁과 지방대학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점차 옛날의 화려한 역사가 한낱 꿈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모교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경북의대 동창회 장학회도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역사와 전통에 비해 모금된 액수는 현재 11억여 원으로서 다른 신생 대학에서도 불과 수년만에 저희들과 비슷한 모금을 하고, 활발한 장학사업 및 모교의 발전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저희들도 한층 모교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물론 출연금이 많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학재단이 튼튼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장학활동의 활성화와 교수 연구활동의 보조 및 학교 기반시설의 확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이 학교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원을 해주신 동창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북의대 동문은 누구나 봉직회원은 15만 원 이상, 개원회원은 30만원 이상의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기본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이상 보내 주신 동문님께는 금 한냥에 해당하는 금메달을 만 65세 때에 증정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북의대동창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1998년 6월

경북의대 동창회장 조 운해 드림

대의원 회의를 마치고

총무 김 명석

금년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제1차 대의원 회의가 Michigan 에서 5월 9일에 열렸다. 신 현원 회장님의 인사말씀과 대의원 소개가 있었다. Washington 지역 에서 오신 정 해관 (President-Elect), Chicago 에서 남 신일 (Vice President), Ohio 주에서 김 영철 (Vice President), 권 기호, 정 병하 구자권 동문들과 Michigan 대의원 대부분 이 참석하셔서 Quorum 을 이루워서 회의는 화기애애 하면서 진지한 토의를 했다. IMF 시대 속에서 지방의과 대학의 Handicap 속에서 어려워하는 모교를 돕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토의 했으며 8월 20 ~ 23일 총 동창회때 다시 구체적인 방법론을 재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토의 사항 ;

1. Spring Delegate Meeting 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 되었다. 회칙에 특별히 명시 된바가 없으므로 그당시 회장의재량에 맡기는데 좋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 1998 모교도서관 Medical Journal (약 만 이천불) 은 그당시 학장과 도서관장의 Communication 결여로 이미 청구된 상태이므로 동창회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1999 년 부터는 모교 도서 보조비는 지난해에 결정된대로 중단하기로 했다.
3. 모교 연수 교수 2인 보조는 경제상 계속 되지 못할 것 같은 가능성이 많다. “김 증기” 동문의 간단한 재무 보고가 있었다. (별지 참조) 이여 이 창윤 동문으로 부터 총 동창회 때 있을 CME Program 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있었다.

1. Preparation for retirement (황 세환)
2. Bronchial Asthma (강 반)
3. New trend in Orthopedic Surgery (신 철야)
4. Management of Hypertension - update (박 회승)
5. Management of Depression in your practice (이 상우)

우리가 처한 현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알찬 내용을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 신 인건 동문의 Membership Directory 에 대해서 E-mail 주소, Fax 번호 도 넣어서 회원간의 유대를 긴밀하게하며, Mailing Label 도 만들어 원하는 지부에 제공할 계획 이다. Newsletter 는 6월, 12월 에 나갈 예정이고, By-Law-Committee 에서는 특별한 안건이 없었다.

끝으로 8월 총 동창회의를 여러 가지 다양한 Program 으로 동창 여러분을 모시고져 하오니 많이 참석을 바란다는 회장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

은퇴의 관문 - 통과 준비를 미리부터 하기 바라면서..

1960 년 반 여 응연

성인이 된후 개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삶의 기로에서 통과하게 되는 중요한 “관문”이 결혼, 직업의 선택, 주거지, 즉 어느곳에 기반을 잡느냐 와 은퇴 등이라 생각된다. 이 모든 관문이 삶의 질과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비들인데, 이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각자의 인생관 과 철학에 따라, 즉 생의 목표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 우리 재미 동창들의 현황에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관문은 “은퇴” 인것같다. 30 년의 “의료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반은퇴” 의 여유 있는 삶을 8 개월째 즐기면서 격고, 들은 몇몇 예들이 은퇴의 관문이 필자가 평소 생각한 것 보다 더 어렵고 중요함을 깨닫게 하고 있다.

1례 : 평생을 주위 동네 환자 진료에 보내다가 70세가 넘어 주위의 강원으로 은퇴한 한 신사 개업의는 진료 관계 일체를 팔고난 후에, 매일 아침이면 근무복장을 하고 자기의 전 진료실까지 출근을 해서 한 시간 쯤 차 안에 앉아서 진료 사무실로 오고가는 환자들을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슬픈 은퇴 생활을 하고 있고,

2례 :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정년 (만 70세) 퇴직을 한 두 사람이, 다 “ part-time ” 진료의사로 계약을 하곤 매일 은퇴전 과 같이 출근을 하고 있다. 이상해서 필자가 왜 매일 일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집에서 뭘 하겠느냐란 대답이었다. 도무지 남득이 가지 않아 필자가 몇가지 더 따져 물어봤다. ;
세계 여러나라 여행은 ? 나 여행하는 것 제일싫소! 운동이나 다른 취미생활은? 병원에 오는 일 외에 취미 있는게 없소! 집 돌보고, 수리하고 정원도 가꾸고 하면? 나 그런 works 좋아하지 않습니다. 습성이 막히는 이 친구들 오늘도 출근 해있다.

3례 : 필자가 겪은 예 들중에 더욱 슬프고 한심한 예는 ; 학계에 널리 알려지고 실력 있는 의사로 존경받던 81세의 신경내과 의사는 지팡이를 잡고 매일 Veterans 병원에서 환자를 보다가 하루는 그 과 직원이 “지난 주에 그분이 영영 잠 에서 깨어나지 않았습시다” 하고 알려주었고, 71세의 흉곽외과 의사 한분도 매일 출근을 하다가 바로 저승으로 은퇴를 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예들이 필자에게는 충격적이고 한심한 일들로 믿어지는데, 우리들 주위 한인 사회에서도 은퇴개념이 전연 다른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옛 친구를 만나 “나 얼마전에 반 은 퇴했다”고 인사하면 놀라면서 “왜 ? 거 참 안됐습시다.” 혹은 “아직 나이는 되지않았는데 왜 무슨일이 있었느냐 ?” 는 식으로 유감을 표시하여 필자가 말을 잃은 경우가 있었다. 아~아 요즈음 IMF 체제하의 한국에서 유행하는, 타의에 의한 “명퇴” 를 연상 했으리라.

한번 사는 인생인데, 끝까지 사회에 봉사하면서 일하는 즐거움에서 바로 저세상으로 은퇴하는 승고한 철학의 직업인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Nobel 상을 받은 위대한 의학 과학자 몇몇 분이 그 공로로 평생 연구기금을 받으면서 최후까지 연구실 생활을 했거나 지금도 연구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은퇴연령” 이후에 성취한 과학적인 업적은 특기 할 만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화학분야와 평화분야 두 개의 Nobel 상을 받은 Dr. Pauling 의 말년의 Vitamin C 에 관한 집념은 과학의 범위를 벗어나 고집, 또는 망령으로 까지 해석한 사람들이 많았다.

필자는 그래서 두뇌의 기능이 쇠퇴해지기 시작하는 연령이 되면, 과학 또 의학자들에게도 한국기업들이 창안한 “명퇴” 제도가 도입되어 일, 또는 의료를 젊은 후계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믿는다.

생애의 마지막 관문이 될 은퇴가 또한 생애의 가장 중요한 관문 일 수도 있다. 일찍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면 Stress 없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삶을 은퇴후에 영위할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오는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벗어 버린, 필자의 반 은퇴 결심이 내려진후 시원하고 홀가분 하던 기분, 회상할때 마다 온몸이 밝은 웃음으로 감싸인다.

은퇴후에 경제적 압박이 있을것 같으면 예상 수입에 맞게 생활 방법을 재 설정 하면 되고, 할 일이 없을까봐 고민하는 사람들은 고민할 시간에 생각하고 찾아보면 주위에 너무나 많고 다양한 “잡일” 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 대학들에서 일년에 두 번쯤 일반 상대의 강좌가 있어서, 외국어, 목공일, 자동차 기술, 미술, 공예, 사교댄스 등 배우고 싶은 것 골라 배울 수 있고, 목공일, 정원일들 조금씩만 배우면 어지간한 집수리와 정원 가꾸기를 직접할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잡일을 잘 처리해 나가면 환자 진료에서 얻던 만족감보다 더 재미있는 즐거움을 얻을수도 있을 것이다. “반은퇴” 를 한 현재, 2 년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완전 은퇴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필자가 갖은 불평은 Golf 를 배울 시간이 모자랄만큼 바쁘다는 것이다. 집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밀리는 일거리들을 볼때마다 반은퇴도 하기전에는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처리했는지 어리둥절 해진다.

Microsoft 회사 같이 급 성장한 기업의 간부로 일한 사람들이 40 대에 은퇴를 하곤, 세계여행, 화려한 저택 가꾸기 등의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는 예들은 꿈같은 이야기 지만, 우리들도 모두 일찍부터 마음을 먹고 착실한 계획만 하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생활을 오래도록 즐길 수 있다고 믿는다.

30 년, 또는 그이상의 직업생활을 했으면 30 년 이상의 은퇴 생활로 삶을 철저히 즐겨야 할것이 당연한 기대요, 보상이 아닐까?

아프리카에 갔다와서

신 현원



본래 동물과 여행을 극히 좋아하여 가고 싶던 Africa 를 1995년 11월에 18일 동안 가서 보고 느낀 바를 이제야 한 번 간추려 써 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도 여름방학이면 꼭 혼자 자그마한 보따리 들고 일주일, 이주일 동안 동해안 어촌들을 찾아 다니며 낚시, 잠수, 수영으로 젊음의 낭만과 고독을 즐기던 그 아름다운 추억, 똑 같은 마음으로 Africa 오지를 가고 싶었던 것이다.

Belgium 의 Brussel 과 Burundi 의 Bujumbura 를 거쳐서 Uganda 의 수도

Kampala 의 Entebbe 공항 도착으로 시작한다. Entebbe 공항은 1976년 이스라엘 인질 구출 특공대의 90분간의 활동무대 이기도 한 유명한 공항이다. Africa 에선 가장 기후 좋고 아름다워 “Pearl of Black Continent” 라고 불리는 Uganda 는 1966년 까지 만 해도 우리나라 의사들의 경쟁속에 월 \$500.00 받고 수백명이 갈 정도로 잘사는 나라 였는데 정치의 와중속에 1991년 Edi Amin 이란 독재자가 나타나 상권을 잡고 있다고 70만의 외국인, 대부분 인도인을 3일 동안에 다 추출하여 일시에 국가가 파산으로 이르고 Africa 에서 가장 비참한 국가중의 하나로 전락하고 만 나라 이다.

이곳에는 우리 경북의 제 52회 (1984년) 출신인 유 덕종이란 동문이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슈바이처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헌신하는분이 1992년에 이곳에 와서 가정을 희생하면서 몸을 상해 가면서 사시는 분이 있다.

대구 대학교 가정과를 나온 부인을 다시금 간호학교에 다녀 수료시켜 가지고 같이와 고생하는 신념의 후배를 동창들은 자랑 스텁게 여겨야 되겠다. 세명의 아이들도 열병으로 고생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큰딸이 Maningoencapalitis 까지 걸려 5일 동안의 Coma 상태로 사경을 헤매이는데 병원도 옮겨 없고 약도 없어 부모가 집에서 치료하는데, Internet 으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니 전세계에서 수백명의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의 동참으로 하느님의 응답으로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였다.

한국 출국시 신문에 크게 기사가 났었으나, 그 후로 몇번이나 신문사들의 면담요청이 있어도 일체 사절하는 겸손의 후배이다. 모교에서 내과수료한 그 후배의 안내로, 일하는 Mulago Hospital 에 가봤는데 1500 Bed 인 대학 병원이고, 최종 후송 병원이고, 가장 큰 병원인데, 옛날 잘 살았던 흔적의 좋은 건물들이 다 황폐되어 있고, 기구들은 원조받아 이곳 저곳에 보이나, 고장나면 고칠기구도 없고 기술도 없어 내 버려져 있어 병동에 혈압기 하나 옮은 것 없고 약은 거의 구경을 할수 없는 비참한 병원이다.

돈이 없어 HIV Test 를 못하나 80% 가 HIV Positive 환자 일 거라고 짐작 하고 있었다. 수술실도 가 보았지만 전기도 옳게 없고, 기구도 없고, 마취기구도 엉망인 것이 수술을 한다고는 도저히 믿기힘들 정도였다. 내가 짐작은, 누가 실수로 Ether 병에 Formalin 을 넣어 환자가 사망을 하였다. 어떤때는 병동에 환자 사망율이 40% 가 되기도 하는 실정이고 시체는 이곳 저곳에 널려 있는 경우도 있고 입원실에 방치된 사망 환자도 보았고, 한 번은 밤중에, 많은 병동에 있는 쥐들이 죽은 환자의 눈을 파먹은 사건도 일어나곤 하는 곳이다.

몇명 안되는 대학 교수란 Uganda 인 의사들도 오전만 잠깐 근무하고 제 살길 찾아 퇴근해 버리고 Dr. Yoo 와 같은, Italy, German, Russia, England 등지에서 온 몇명의 의사들이 봉사하고 있고, 몇명 안되는 간호원도 5시면 가버리고, 밤에 간호원도 없을때도 있으니 병원이 아니라 죽을사람 모이는 곳이구나 싶었다.

한국 선교사들도 만나 봤는데 고생들 많이 하고, 사모님 한분은 총신학교까지 나온 아주 미인 이시던데 어떻게 고생을 했던지 그곳 흑인과 같이 새카맣게 되어 있었다. 그 분들을 만나니 나 같이 놀러갔던 사람은 부끄럽고 숙연해져서 그 앞에서는 말도 옳게 못하고 말았었다. Uganda 와 Kenya 에서의 관광, 그리고 Safari 토착민들과의 만남등 영원히 잊을수 없는 추억이다.

끝이 없는 광야를 낮게 날으는 단발 비행기 속에서 내려다 보이는 수없이 많은 야생수들, 이곳 저곳 나무들에 붙어 있을 뜻는 Giraffe들, 25마리 쯤 보이는 무리들의 사자들이 낮잠을 즐기는데 옆에까지 차를 대고 봐도 무심한 광경, 열을 서서 광야를 지나가는 코끼리 떼들, 너무 가까이 아예 공격태세로 돌아서던 코끼리, 헤아릴수 없는 수천 만 마리의 Zebra 와 Wild beast, 그리고 Impala, Topi들, 사냥감을 고물러고 내 옆차의 Hood 에 올라가서 잠찰하던 Cheetah 들, 저녁때 사냥하러 가면서 뚜껑없는 Jeep 를 탄 나와 2-3 M 의 거리를 스쳐가면서도 한 번 거들떠 보지 않던 3 마리의 사자들, Masai 족들의 소들과 어울려 같이 풀을뜯는 Thomson's Gazalla 그리고 Wild Beast. 이곳 저곳에 출몰하는 Hyena 와 Jachal, 뒤에 쫓겨 파도를 이루며 내뺀던 Hippo 들, Water Buffalo 등 평생 잊을수 없는 구경을 했다. 키크고 잘생긴 Masai 족들의 아름다운 음울 그리고 Dance, Tamed Giraffe 가 내손에서 먹이를 가져가고, 구출된 Cheetah 새끼가 내 팔과 어깨를 물면서 장난 치던일, 반 wild 한 코끼리와 Rhino 새끼들을 어루만져 본일등 특히 잊을수가 없다.

Safari 끝나고 건물도 집도 인적도 없는 광야 한군데의 공항의 활주에 나를 내버리고 간뒤 수많은 Baboon 들과 Gazella, Impala 등을 구경하다가 문득 깨달으니, 이 인적하나 없는 이곳에 사자 하나라도 나타나면 꿈쩍없이 죽었구나 하는 공포로 20여분 기다리니 단발 비행기가 나타나 나를 pick up 하던일, 모두가 어제만 같다. Africa 를 떠나면서 수년내로 다시 이곳에 와야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은퇴하면 Africa 에 와서 도움을 주는 보람된 생활을 생각도 해 보았지만 도무지 자신이 없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찾아서는 꼭 다시 가겠다는 것이 솔직한 바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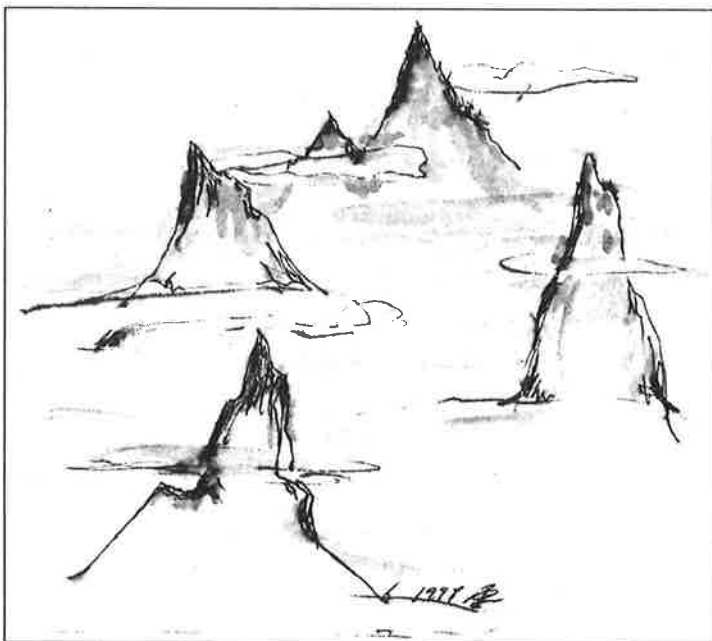
특키 산맥 여행 시집

[글 : 이 장운]

[그림 : 오 예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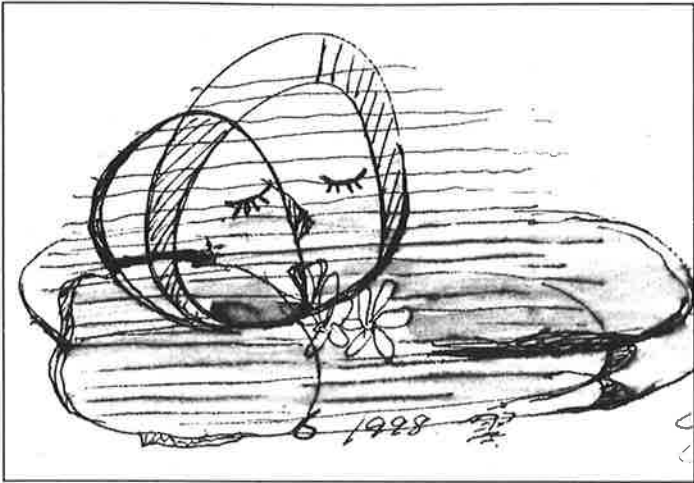
아침

산 봉우리들은 밤마다
한 곳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웅성 웅성 무슨 음모 같은 것을 하다가
아침이 오기 전
급히 제 자리로 돌아가
간 밤에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각기 자기 분량의 아침 노을을 받아
혹은 가깝고, 혹은 멀다
양지질을 하면서 다시 바라보면
어떤 산은
면도를 하고 난 다음 포르스름한 얼굴에
로손을 바르고 있고
어떤 산은 이미
눈 화장을 끝내고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
우유 빛 감도는 저 빙하의 호수 속에
비치는 제 얼굴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리라.



루이즈 호수

사람들은 여기 와서 모두
입을 반쯤 벌리고
닥아서는 절경 앞에
모든 생각이 무너져 버린다
가슴을 식히고 가는 사람
때 들은 영혼을 헝구고 가는 사람
그러나 오늘 나는
우유빛 떠도는 저 빙하의 호수 위를
오랫동안
맨발로 걷고 싶다
신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무슨 기적 같은 것이
꼭 일어나고 말 것 같은 곳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내 발바닥이여
세상을 밟고 디디고 온
피로한 내 마음의 신발로
여기서 벗어 버린다



산길에서 만난 꽃

이 가파른 절벽에 붙어서서
목이 타는 시간
쭈고 외로운 밤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이 작은 몸이
하늘을 열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침
아무 것도
아무 것도 묻지 말고
내 고움만 보고 가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인지 묻지 말고
내 가느다란 목 밑미에 내려 앉는
몇 장의 가벼운 슬픔
아파하는
그대 영혼의 모습도
보고 가십시오

오랫 동안 잊었다가
어쩌다 한번 생각이 나면
이 세상 어느 곳에는
새벽마다 어김 없이
이슬이 내리는 곳
이 장엄한 산맥을
다시 한 번
그리워 애 주십시오
외로운 것들은 모두
하늘처럼
맑은 빛깔로 피고 질 것입니다

“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

김 준기 (1972)

재미 한국 의사들이 일종의 “Rite of passage” 로 모두 거쳐가는 25 주년 Reunion 과 모교방문을 지난 여름 다녀왔다. 짧고도 Emotionally Intense 한 경험을 한 나로서는 “잃어버린 때 를 찾아서” 해매었던 Sentimental Journey 이었으며, 결국은 이곳 미시간 현주소에서 나 자신을 재 발견한 뜻깊은 일주일 이었다.

돌이켜 보니 어제까지 향촌동에서 막걸리를 밤새 마시다가 하루아침에 Chicago 에 끌려와서 Helen Keller 처럼 듣지도, 말하지도, 보아도 보이지도 않든 농아 인턴을 마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4 반세기가 흘렀다. 그래도 미국사람의 커다란 카운을 질질 끌고 다니던 Columbia Hospital 을 잊을수가 없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 당시의 미국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다.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친구따라 E.C.F.M.G 치고, 영화에서 보든 나라리 우드 가 매일 살고 있다든 미국으로 관광객처럼 철없이 왔다가 Quick sand에 서서히 빠져 들어가듯이, 인생의 반을 이 이상한 나라 미국에서 지나버렸다.

25 년 만에 찾아 본 모교는 너무 생각보다, 기억보다 초라하여서 서글펐다. 수십년을 고목처럼 변함없이 같은 자리를 지켜준 붉은 벽돌 건물은 항수를 달래주기 보다는 차라리 우리 추억들을 보관해 두는 박물관 같았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능지처참하던 시체 해부실은 마치 외로운 고분같이 따로 서 있었다. 그당시 유행했던 무신론적 실존철학을 토론했던 정원 나무 밑의 돌 벤취 에는 아직도 송충이가 기어다녔다.

Penthouse 같은 본관 꼭대기의 2 학년 교실로 혼자 가만히 들어가 보았다. 매우 지저분한 교실들은 바로 내가 어제 수업마치고 버려둔것 같았다. 텅 빈 교실 의자에 앉아 있으니 이구석, 저구석 에서, 미세한 소리들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다. 식은 죽이라고 명명했던 정재규 교수님의 monologue 도 들리고, 어젯 밤 술값 안내고 담넘어 도망하다 술집 판잣담이 무너져 허리를 다친 친구의 신음 소리도 들리고 하이마트에서 미팅 준비하는 소리등등 와글 와글 시끄럽게 들리다가 갑자기 조용히 하라는 서 재규 교수의 고함소리에 나도 환청에서 깨어났다. 지금 돌아 생각하니 아까운 세월들이 후회가 되었다. 젊음은 불행하게도 젊은 사람 만이 가질수 있는것이기에 얼마나 낭비가 심하였던가 ?

그 다음날 은사님을 모시고 사은의 시간도 가졌다. 속절없는 세월이 지나간 흔적을 보고 가슴이 아팠으며, 특히 핵 의학 교실원으로 모셨던 황 기석 교수님을 마지막으로 뵈웠다. (가신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쓸모없는 쇠광석 (혹은 Heavy metal titanium) 에서 200 야드를 칠 수 있는 Callaway Golf 채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은의 인사도 드렸다.

도심 한가운데 아파트 건물처럼 복잡하게 확장된 대학병원을 돌아 보았다. 환자 대기실에 가득찬 외래환자들은 나의 어린시절 시골에서 5 일 만에 서는 장날을 연상하고, 힘들어 하는 수련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마도 \$10,000 의 특별 Scholarship Fund 을 보내주신 MA. 의 탁 원준 선배의 심정도 이러 하리라 사료된다. (동창회 재무로서, 후배로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전공인 X-ray Dept. 는 시설이나 교수진이 이곳 대학병원과 다름없이 훌륭하였으며 열심히 준비해간 Neuro - Radiology 의 특강을 하였다.

오후에는 의예과 시절 “칭찬은 아름다워라” 를 누비고 다녔던 부현동 경대를 Tour 하였다. 경대는 양적으로 많이 확장 된 것 같은데, 성냥갑 처럼 너무 복잡하게 건물이 들어 선 것 같았다.

제주도에서 의 2박 2일은 변하지 않은 모습과 우정을 확인한 꿈결 같이 지나간 추억 이었다. Time Machine 을 타고 25년 전으로 시간과공간을 초월하여 지났다. 다시 대구로 돌아오니 온 거리는 지하철 공사와 과소비 현상으로 Energy 가 넘쳐 흘렀다. 사고방식도 많은사람이 많이 변질한 것처럼 보였다. 마치 Titanic 침몰 직전의 1등 실의 파티장 같이 보였다. 아무래도 밖에서 들여다 보는 내눈에는 비 정상인 것 같아 친구에게 이래도 괜찮으냐고 물어보니 친구도 동감하면서 말하기를 “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망하면 다시 일어날수 없으니, 반 정도만 차라리 망했으면 오히려 나을 것 이라고 말 하였다.

조용한, 평화로운, 그래서 약간은 외로운 미시간으로 다시 돌아왔다. 동양 의학에서는 25년을 한 세대로 계산 하니까, 나도 한국과 미국에서 한 세대가 지나고 후반전 3-Quarter로 들어가는 인생을 관조하여본다. (Hockey 라면 3rd period 가 마지막 인데) 지금까지 키운 사람들 사이에서 Survive and Thrive 하려고 너무 바쁘게 살아 온것 같다. 아무리 오래살아도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 외국땅에서 살아야 하는 경계인 (Marginal Man)의 숙명으로 생각해 왔었다.

의미없는 생활은 “죽음에 이르는 병” 을 초래 한다는데 이제 나도 매일 속에서 의미를 찾아 보아야 겠다. 소식이 없는 CA. 친구들도 만나 보아야 겠다. 집을 떠나는 막내딸과 긴 이야기도 해 보아야 겠다. 교회의 Community Outreach Program 에는 꼭 봉사 하여야 겠다. 올해는 재무일을 열심히하고, 병동수도 즐기고 적자재정에 시달리는 모교를 도와야 겠다.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권 종효 (1979 Illinois) 후배동창께서 장학기금 \$1000.00 을 보내왔을 때 선배로써 무한한 죄책감도 느꼈다.

이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될지모를 35 주년, 50 주년 Reunion 이 벌써부터 기다려 진다.

레코드 1백년 < 8 >

◇바티칸교황청 시스틴채플의 성가대를 지휘했던 거세남성가수 모레스키의 1902년 레코드.



중세 암흑기를 노래한 '카스트라토'

申 鉉 燦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린도전서 14장 34절)는 성경말씀을 잘못 해석한 중세 교회는 음악사의 한부분을 비극으로 만들었다. 중세 암흑시대의 기독교는 종교뿐 아니라 정치, 사회, 예술의 모든분야를 지배했고 종교의 부패와 잘못된 성경해석은 많은 비정서적인 사례를 남겼다.

그중의 하나가 여자들이 교회에서 큰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금한 것이다. 이로인하여 교회안에서 뿐만아니라 교회밖에서도 여자들은 제한을 받았다.

16세기에 로마교황청의 시스틴채플에서 카스트라토(Castrato·남성거세가수 주로 소프라노)들이 활약했다는 기록이 있고, 카스트라토의 전성기였던 18세기에는 이탈리아에만도 1년에 4천여 어린소년들이 거세되었다. 당시 정상급 카스트라토의 인기와 영화는 요즘 영화배우나 오페라 가수들을 능가할 정도였다. 카스트라토는 젊은 사람들의 우상이 됐고,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 목소리는 마치 외계에서 온듯한 신비감을 주었다.

작곡가 조셉 하이든도 음성이 좋아 카스트라토가 될뻔 했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거세를 면했다. 헨델은 그가 작곡한 46개 오페라 중에서 적어도 16개를 카스트라토를 위해 만들었다. 모차르트는 카스트라토에게 성악이론을 배웠고 또한 「이도메네오」등 여러 오페라에 카스트라토역을 작곡했다.

많은 카스트라토의 이름들이 역사에 남아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가수가 몇년전 우리나라에 수입된 영화 「파리넬리」의 주인공 공 「칼로 브로스키」(1705~1782·예명 파리넬리)다. 원래 오페라 작곡가였던 헨델이 오페라를 그만두고 오라토리오작곡을 주로

카스트라토를 고용했다. 18세기 시스틴채플의 성가대 구성은 28명의 남자성가대원으로 4부가 각각 7명으로 되어있어 7명의 소프라노가 필요했다. 1810년대 이탈리아를 점령한 나폴레옹이 카스트라토를 엄하게 단속하고 교회도 카스트라토의 고용을 제한해서 19세기말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1902년4월, 그라모폰의 「가이스버그」가 로마교황청을 찾아갔다. 교황 리오 8세의 허락을 받아 시스틴채플의 성가대를 녹음했다.

속셈은 성가대 지휘자이며 소프라노 솔로리스트인 카스트라토 모레스키(1858~1922년)의 음성을 녹음하기 위해서였다. 하마터면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을뻔했던 카스트라토의 음성이 음반으로 보존된 것이다. 최근 미국 예일대학교 음대에서 「구노」의 「아베 마리아」중 17곡의 모레스키음성이 담긴 CD를 시판했다(Pearl 9823 Alessandro Moreschi, The last Castrato).

- 교회서 여자노래 금지
- 거세된 소년가수 등장
- 18C 伊중심 인기 폭발
- 나폴레옹 점령후 소멸

하게된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파리넬리 때문이었다. 헨델이 고용한 카스트라토 「세네시노」가 라이벌 오페라회사의 파리넬리 인기를 따르지 못하는 등으로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다. 로마교황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소년들의 거세를 금했지만 시스틴채플에

1997년3월24일 한국조선일보에 연재된 신 현찬 선생님의 Classical Music 역사의 한편을 소개 하면서, SATZ- Something to talk about music 에 카 루소 첫녹음의 현장 밀라노의 그랜드호텔에 대해서도 언급한바가 있는 Veteran 입니다.

토막소식

Michigan 지구 동창회 소식

동창회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

지난 1/31/98 에 Michigan 동창회겸 총 동창회1차 Executive meeting 을 아래와 같이
갈었습니다.

결정 사항

- 1) 앞으로는 경북의대 미시간 동창회의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만장
일치로 채택이 되어 현재 신 인건 회장님이 일년 더 수고 하시게 되었습니다.
- 2) 5월 9일 98년 (토요일) 에 있을 대의원회의 때에 경북의대 미시간 동창들의 Golf
Outing 도 함께 가지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 3) 동문들의 경 조사나 한인단체들의 협조 요청 등에 대비하여 회비를 \$50 볼로
결정하였고, 지난해 연말 파티 때에 전남의대로 부터 온 협조요청에 \$30 볼을
추가하여서 \$80 볼로 결정 되었습니다.

회비를 내신 동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현원/박노종/신현찬/김영길/정수진/신인건/박대원/유진우/김준기/천종길/김명석
합계 : \$800.00 볼

경북의대 미시간 동창회에 이어서 올해 8월에 있을 경북의대 미주 동창회를 위한
Executive Meeting 에서 신 현원 회장님의 사회로 Preliminary Schedule Review 를
하였습니다.

1. 5월 9일 98년 에 있을 대의원회의겸 Golf Outing 의 시간과 장소는 결정이
되는되로 연락할 것임. (Ypsilanti Marriott Hotel 에서 할 예정임)
2. 경북의대 미주동창회 기간중 (8/21 - 22/ 98년, 금-토요일) Golf 는 Shotgun
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숫자가 초과될 경우 인근에 있는 (Pine View C.C.)
에서 Accomodation 할 것임.
3. 8월 20일 목요일 저녁의 식사는 가능하면 Pine View C.C. 의 Club House or
Ann Arbor 서울 가든을 예약하여 한국음식으로 해결할 예정임.
4. 금년 CME Course 가운데에는 Retirement 와 Will 작성에 관한 것을 포함할
예정임.
5. 모교 교수들을 질적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해오던 미국유학 보조는 계속될
예정이나, 모교 도서관에 부쳐주던 Medical Journal 은 동창회 선에서는 중단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고 결정 하였습니다.
6. 이밖에 Hotel Room Rate 이나, 음식에 드는 경비등 상세한 사항은 회장이나
총무께 문의 하십시오.
7. 참석하신 분들 (Executive Meeting) : 신현원/유진우/신현찬/박노종/신인건/
김영길/정수진/박대원/김명석/김준기/천종길 /Mrs.신현원 등 이상 19 명

1998 재무보고

김 증기(1972)

A.	수입 (1997 이월금)	:	\$15,706.09
B.	지출 1997 Expenses	:	\$ 2,017.51
	Telephone	:	\$ 187.51
	Stationaries	:	\$ 79.13
	Postages	:	\$ 33.67
	Convention Deposit for 1999	:	\$ 3,000.00

	Total		\$ 5,317.82
	Balance in Checking Account		\$ 10,388.27
C.	Vanguard Mutual Fund (As of 12/31/1997)		\$ 62,383.67
	Year return approximately 15%		

Membership Due 와 Scholarship Fund,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특별 감사 드립니다 ”

Mass. 에 사시는 탁 원균 (1965) 동문께서는 장학금 \$10,000.00 을 보내시면서 모교의 방사선 치료과(Radiation Oncology) 에 어떤 목적으로도 쓰도록 전달되었으면 하셨습니다.

Ill. 에 사시는 권 종효 (1979) 동문께서는 장학금 \$1000.00 을 보내왔습니다.

*Thank
You*

“ 차기 총 동창회 ”

에 관하여 미리 알려 드립니다.

Date : Oct. 7. 8. 9th, 1999

Place : Turf Valley Hotel & Country club

2700 Turf Valley Rd.

Ellicott, Maryland 21042

편집 후기

이곳 미시간은 6월이 접어들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맹 더위가 기성을 울립니다. 사람들을 흔히 “엘니뇨”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탓이요 하기보다는 네탓으로 돌리는게 우리들의 생활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슴치 않으시고 원고를 보내주신 동창 선생님들과 좋은 그림들로 이 Newsletter 를 예쁘게 단장해 주신 오 예설 (Mrs. 김 명석) 씨 감사를 드립니다. 대 선배이신 조 운해 총 동창 회장님의 “동창여러분께” 하는 호소문 (?)은 읽는이로 하여금 모교에 대한 깊은정과 향수를 느끼게 합니다.

다가오는 “라니냐” 시대에 감기 조심하시고 8월 총 동창회에는 모든 동창 선배님들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유쾌하고 뜻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장님의 명에 따라 6월 Newsletter 편집을 끝내고 나니 후련하기에 앞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12월 Newsletter 는 미리 차근히 준비를 해서 알찬 내용이 가득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 대원

1998 년 6 월